



보도시점

2026. 6. 2.(화) 17:00

6. 3.(수) 조간

배포

2026. 6. 2.(화) 09:00

함께하니 농작업 부담도, 기름값도 뚝... 고령화·고유가 시대의 대안, 공동영농

- 보령 남포농협, 공동영농으로 일일 작업량 50% 증가, 유류 사용 25% 절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6월 2일(화) 오후에 충남 보령의 남포농협을 방문해 공동영농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공동영농은 다수의 농가가 농기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여 농작업을 효율화하는 방식부터 농업법인이 중심이 되어 주변 소규모 농가의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경영을 규모화하는 방식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09년부터 들녘공동경영체육성, 전략작물산업화 사업 등을 통해 공동농업경영체에게 유통·가공시설, 농기계, 컨설팅을 지원해왔으며,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농업법인이 농가로부터 농지를 임대 또는 출자받아 일괄 경영하고, 수익을 농가에 배분하는 방식의 공동영농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26년 6개소(횡성김제부안영광상주경주) 지원 개소당 20억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이날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방문한 남포농협은 2013년 30명의 조합원 농지 50ha를 대상으로 공동농작업 방식의 공동영농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전체 조합원(1,710명)의 61.4%(1,050명)가 참여하며 1,000ha 규모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을 추진하고 있다.

남포농협은 35명 규모의 공동 농작업단을 운영하며 경운·정지 작업부터 육묘, 이앙, 방제, 수확 등 전 단계에 걸쳐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농 등으로 구성된 공동작업단은 연접 농지 중심으로 농작업을 수행하며, 남포농협은 전 단계에 걸쳐 유류비는 약 25% 절감되었고, 일일 작업량은

50%가량 증가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작부체계를 벼 단작 중심에서 전략작물 포함 이모작으로 전환하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다. 벼 품종은 삼광, 친들로 통일해 생산 전 단계를 관리하며 고품질 쌀 생산에 집중하고, 콩(300ha)을 재배하며 소득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동계작물로 보리(100ha), 밀(30ha)을 생산하며 농산물 판매소득은 물론 이모작 직불을 통해 농가소득을 최대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 농가 기준 1ha 당 소득이 1,08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더욱이, 남포농협은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수매하며, 판로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벼의 경우 보령 통합 산지유통주체(RPC)에서 도정·가공 및 판매를 전담하여, 생산된 쌀을 고품질 지역 브랜드 쌀로 유통시키고 있다. 콩 등 타 작물의 경우 '24년 전략작물산업화를 통해 지원받은 정선·저장시설을 통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저장력을 높여 고품질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석규 조합장은 “농촌 고령화*로 가중되는 작업 부담은 덜고, 소득은 증대할 수 있는 공동작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고 있다”며, “유류비 부담 완화, 농가 소득 증대가 가능한 공동영농이 새로운 농업 모델로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26년 기준 남포농협 조합원 1,710명 중 65세 이상 1,293명(76%)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고령화,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여 생산비 절감, 작부체계 효율화, 청년농 활용 등이 가능한 공동영농 체계로 농업모델을 고도화해나가겠다”며, “산지유통주체와 공동영농주체 간 결속 또한 강화하고 수요에 기반한 생산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허동웅 (044-201-1831)
		담당자	사무관	김수연 (044-201-1842)